

인간과 하천

4

River &amp; Culture



안도현 | 우석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ahn2004@woosuk.ac.kr)

## 민물고기를 기르며 배운 것들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를 구상할 무렵이었다. 나는 물고기의 생태를 좀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싶어 큰 어항을 구입했다. 강원도 양양의 남대천을 비롯한 몇몇 강으로만 돌아오는 연어를 구경하려면 가을철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나는 좀 피를 내어 우리 민물고기를 어항에다 기르면서 연어를 내 머릿속으로라도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다. 현란한 빛깔을 자랑하는 금붕어 종류나, 이국적인 낯선 맛을 풍기는 열대어보다는 우리 민물고기가 안정맞춤일 것 같았다.

집안에 어항을 들여다 놓고 쉬는 날이면 나는 틈나는 대로 근교의 개울이며 저수지를 돌아다녔다. 섬진강 상류에서 송사리 떼를 잡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은 성냥개비보다 작은 그것들이 지쳐서 혹시 숨을 놓지나 않을지 마음을 조이기도 했고, 모악산 골짜기에서 얻은,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가 어항에서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느라 밥 먹는 것도 잊곤 했다.

한 번은 야카미에 파란 불을 켜 듯한 점이 붉은 껍지 새끼를 한 마리를 입실에서 데려오다가 그만 죽여 버린 일이 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오히려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만 것이다. 어항 속에서

한 달 넘게 잘 살던 모래무지가 어항의 수면 위로 떠오른 날도 그랬고, 한겨울에 운암호에서 빙어를 사다 넣었다가 금세 뻗뻗해진 몸으로 죽어 가던 모습을 본 뒤에도 그랬다.

나의 실패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때는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제법 몸집이 큰 갈겨니 한 마리가 저보다 작고 힘없어 보이는 작은 것들을 닥치는 대로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이다. 송사리도 각시붕어도 줄납자루도 왜물개도 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거의 매일 한 마리씩 죽어 가는 것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것은 이른바 텃세 때문이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것들을 한집 속에 우겨 넣어 놓았으니 싸움이 일어나는 게 당연했다.

우리 물고기를 길러 보자고 권장하는 이들은, 물고기가 다 자라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풀어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럴 듯한 이야기 같고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나는 회의적인 편이다. 집안에서 기르는 물고기는 어항 크기만 한 공간이 자신의 세계인 줄 안다. 어항의 길이와 어항 속에 담긴 물의 높이가 그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인 것이다.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강물 속에 그들을 갑자기 풀어놓았을 때 거기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 그것은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를 어느 날 문득 서울 시내 한복판에 데려다 놓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대책 없는 고민에 빠져들면서도 우리 집 어항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데, 그들이 그 순간 꼬리나 지느러미를 흔들지 않고 물속에 못 박힌 듯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나는 그때 그들의 눈부신 비늘 하나하나를 헤아리듯이 살펴보는 즐거움에 빠져든다. 그리고 그 한 순간의 정지가 주는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음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먹이를 두고 물고 뜯으며 경쟁하는 한낱 미물로서의 물고기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에 이른 구도자의 성스러운 자태로 비쳐진다. 나날의 밥벌이와 체면치레와 자기선전에 세월 가는 줄 모르는 나에게 물고기는 한 순간 고요히 멈추어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를 순화시키는 것이다.

어항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보는데, 어린 아들 녀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빠, 강물 속에서 물고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어항속 물고기를 보며 내 나름대로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물고기가 나를 본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물고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의 어항 속에 갇힌 인간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들이다. 우리가 물고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보다 겨우 덩치가 좀 크다는 것이고, 인간 아닌 것들을 얹잡아 보고 함부로 죽이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

**안도현**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원광대 국문과와 단국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 『서울로 가는 전봉준』, 『그대에게 가고 싶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그리운 여우』, 『바닷가 우체국』,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하여』,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간절하게 참 철없이』 등을 냈다. 시와시학 젊은 시인상, 소월시문학상, 노작문학상, 이수문학상, 윤동주상 등을 받았다. 현재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